

## 후두스트로보스코피검사와 전기성문파형검사의 동조를 이용한 성대 점막 병변의 위치 확인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교실, 음성언어의학연구소

김한수\* · 최홍식 · 김정홍 · 김지훈

Childers 등(1987)은 EGG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한 결과, 성대결절이나 폴립등 성대 병변이 있을 때, 개대기(opening phase)에 특징적인 편평파가 관찰되었는데, 이를 이용하여 성대 병변의 객관적 진단 뿐 아니라 위치나 크기 추정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. 하지만, 실제 성대의 접촉양상이 전방에서 후방으로, 하순에서 상순으로 3차원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2차원적인 전기성문파형검사의 파형만으로는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가 힘들었다. 2000년 Laryngograph 사에서 개발한 LxStrobe<sup>®</sup>는 후두스트로보스코피검사와 EGG를 동조화(synchronized) 시켜서 스트로보스코피의 광원이 켜지는 순간에 해당하는 성문파의 위치를 같은 화면에서 제시하여 준다. 이에 저자들은 2001년 11월 이후 이 검사기기를 이용하여 진단된 성대의 점막 병변을 후두스트로보스코피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발생위치에 따라서 네 부위로 분류하였다(AL, AU, PL, PU : A ; anterior, P ; posterior, L ; Lower margin, U ; Upper margin). 이후, 병변의 위치와 이에 따른 성문파형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,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성문파형에 특징적인 변화가 유도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결과로 EGG에서 특징적인 변화가 성대 병변의 위치를 예측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자 한다.